

# ANGEL

## Developments in Second Temple Angelology

Lecture by  
*Serge Ruzer*  
The University of Hebrew of Jerusalem

08. June. 2014  
Biblia Academic Lectures at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Supported by Songhyun Korea Methodist Church

Reference Guide Footnote:

<sup>1</sup> Serge Ruzer, "Angel-Developments in Second Temple Angelology" (paper presented at the Biblia Academic Lecture, Jerusalem, 8 June 2014), 1-6.

Reference Guide Bibliography:

Ruzer, Serge. "Angel-Developments in Second Temple Angelology" Paper presented at Biblica Academic Lecture. Jerusalem, June 8, 2014.

BIBLIA•Jerusalem



# Angel—Developments in Second Temple Angelology

08. June. 2014

Biblia Academic Lectures at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WITH

Serge Ruzer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 천사들의 이름

천사에 대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그 천사가 천상적인 존재인지, 아니면 사람인지에 대해서 논의할 수는 있지만, 확실하게 단언할 수는 없다. 특별히 제1차 성전 시대를 배경으로하는 성경에서는 이런 현상이 훨씬 더 하다. 제1차 성전시대에 예언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예언자들이 곧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의 역할을 하였다**. 예를 들어서 "**말라기**" (나의 천사)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알수 있듯이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천사의 역할을 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였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16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역대하 36:15)

기원전 2세기에 와서 천사들은 드디어 **이름**을 가지게 된다. 다니엘서에서 비로소 "**가브리엘**"과 "**미가엘**"이 나오기 문이다. **천상적인 존재인 천사와 그 천사가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당대에는 매우 자연스런 현상이었다**. 이미 **고대 앗시리아 시대부터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고대 서아시아에서 등장하기 시작하고, 바벨론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천사들이 이름을 가지기 시작한다.**

13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14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천삼백 주야까지니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15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16 내가 들은즉 울래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17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다니엘 8:13-17)

1 그 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 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 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2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3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라. (다니엘 12:1-3)

다니엘서와 같은 시대에 기록된 **희년서** 2장에 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천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희년서**의 저자는 **하늘에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이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천사들은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한다.**

### 대표적인 천사들의 수

천사들의 수에 대해서 제2차 성전시대의 문학에서는 주로 **네명의 주된 천사**와 그 외의 천사들을 이야기한다. 또 **일곱명의 주된 천사**와 그 외의 천사들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위에서 **에녹서**의 경우에는 천사들의 십부장들이 있었다고도 이야기한다. **네 명의 천사에 대해서는 에스겔서**에 근거하고 있다. 에스겔서 1장 뿐 아니라 10장에서는 "4"라는 숫자가 매우 자주 등장하고, 네명의 천사의 이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8-9세기에 기록된 **Pirqe deRabbi Eliezer**에서는 이 네 명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천사들이 각각 **미가엘, 가브리엘, 우리엘, 르우엘**이라고 이름 짓는다. **일곱명의 주된 천사를 말하는 제2차 성전시대의 문학은 스가랴서**에 근거한다. 스가랴서 4:10에서는 일곱 촛대를 하나님의 일곱 눈이라고 지칭하는데, 이 일곱이 바로 천사라는 것이다.

1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2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

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고... 8 여호와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 10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와 눈이라 하니라. (스가랴 4:1-10)

### 다양한 천사들이 등장-(1) 고대 서아시아의 문화적인 영향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신앙이 생기기 이전의 **이스라엘은 다신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자연을 다스리는 **고대 서아시아의 신들**을 알고 있었고 그들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 유일신 신앙이 생기면서 다양한 신들이 **이스라엘의 삶에서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더이상 유일신 신앙의 삶을 강제할 수 없는 **포로기의 상황에** 들어오면서 **제1차 성전 시대에 사라졌던 다신론적인 신앙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천사들의 이야기로 변형되기** 시작했다.

1 하나님의 앞에서 그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מלאך הַפְּנִינִים)가 여호와와 말씀에 따라서 모세에게 말했다. "완전한 창조의 역사를 기록하라. 어떻게 육일만에 전능하신 여호와가 그가 창조의 일을 끝마쳤는지, 그리고 어떻게 일곱째날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였고, 그 안식일이 모든 세대가 지켜야 할 거룩한 날로 규정하셨는지, 그리고 그 안식일이 어떻게 그의 창조의 표식이 되는지를 말이다." 2 첫째날에 하나님이 물과 땅 위의 하늘을 만드셨다. 그리고 모든 영이 그 앞에 수종을 들었다. 그 영들은 (하나님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먼전의 천사 (מלאכים הפנים), 축성 천사, 바람의 천사, 구름의 천사, 어둠의 천사, 눈의 천사, 우박의 천사....(희년서 2:1-2)

그래서 때로는 성서의 이야기에 천사를 넣어서 새롭게 각색하기도하였다. 그 예로는 **희년서 2장**을 들 수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받았다고 말한다.** 그리고 많은 천사들의 이름과 그 역할이 나온다. 이렇게 **천사들의 존재와 천사들의 각자가 다른 역할을 인정한다는 것이 곧 다신론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 하나님** 이시고, **천사들은 그보다도 열등한 영적인 존재들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천사들의 운명조차도 **하나님이 결정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6장**에서 **천사의 존재이유는 하나님이 그 어떤 천사들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인데, 이사야 6장이 기록되었을 제 1차 성전시대에 비해서 포로기 이후인 제2차 성전 시대에는 천사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럼에도 이 천사들은 **이사야 6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하나님 보다는 열등한 존재이다.**

## 다양한 천사들이 등장-(2) 시대적인 상황과 그 상황에 대한 비관주의

천사들의 등장인 묵시문학의 등장과 함께 생각해야한다. 묵시문학의 주제는 "고난" "구원" "심판"과 같은 것들인데, 이런 주제들의 기저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는 생각이다. 그들이 처한 현실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되는 것이 없다는 현실에 대한 탈출구로 천상적인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들은 천상에서 벌어지는 신들의 전쟁에 휘말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였고, 영적인 존재들에 비해서 **인간들은 그저 부차적인 존재(Secondary)**라고 인식하게 된다. 신들의 전쟁에 휘말린 이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천상에서 결정되어진다고 여겼다.

1 사람의 아들들이 늘어갈 때에 그들 가운데에서 딸들이 태어났다. 2 하늘의 아들들인 파수꾼(천사-네필림의 조상)들이 그들을 보고서는 그들을 원하게 되었다.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사람들의 딸들을 선택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낳자."하였다. 3 그러자 그들의 우두머리인 쉘미하자(Shemihazah)가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그러지 않기 바라오. 나 혼자만 그 큰 죄를 짓겠소." 4 그들이 모두 쉘미하자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맹세하겠소. 그리고 우리는 우리 모두를 저주의 끈에 묶을 것이오. 우리 중의 어느 누구도 우리가 계획한 일을 마칠 때까지 이 (천상의) 회의에서 돌아갈 수 없소." 5 그들 모두는 함께 맹세하고 저주의 끈으로 서로 묶었다. 6 그리고 그들 200명 모두가 야레드("내려가다"라는 의미)일에 헬몬산 정상에 내려갔다. 그리고 그 산을 "헬몬"이라고 불렀다. 왜냐하면서 그들이 저주의 끈으로 서로를 묶으며 맹세하였기 때문이다. 7 이것은 들 우두머리들의 이름들이다: 그들의 최고 우두머리인 쉘미하자, 두번째 우두머리인 아르테코프, 세번째 우두머리인 레마셀, 네번째 우두머리인 코카벨... 스무번째 우두머리인 예하디엘. 8 이들이 그 파수꾼들의 십부장의 명단이다. (에녹서 6:1-8)

물론 성경에서는 그리스 신화처럼 다신론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마치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의 전령과 천사들이 신들의 조정을 받듯이 하나님은 월등한 한분 하나님으로, 그리고 천사들은 그 하나님보다는 열등한 존재로 그려진다. 그들은 영적인 존재이고 천상의 존재이기는 하지만, 천사들 사이에는 갈등도 있고, 때때로 하나님에 대해서 열등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대항하기도 한다. 사람들이 천상의 전쟁 Heavenly War 에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운명론적인 부차적 존재로 각이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파수꾼의 책"이라고 불리는 **에녹서**의 첫부분이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영적인 영역의 존재들에 비해서 부차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비관주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God's great plan 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수동적으로 바꾸어 버렸다.

### 쿰란 공동체 그리고 신약성경의 천사들

쿰란에서 발견된 공동체 규약에 의하면, **쿰란 공동체**의 사람들과 하늘의 천사들은 쌍둥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쿰란 공동체 문서에서 하늘의 천사들의 이름들은 나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쿰란의 사람들이 천사들의 쌍둥이들이고 자신들이 가진 이름들이 곧 천사들의 이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전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천사들 가운데에서 가장 큰 최고의 천사는 **멜기세덱**이었다.

신약성서의 저자들은 천사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다. 복음에서에서는 **예수**의 수태 장면에서나 **예수**의 고난 장면에서 **가브리엘**이나 이름을 알 수 없는 천사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신약성서 이전에 기록된 제2차 성전시대 문학에서 처럼 천사가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천사들에 대해서 논증하고 있는 중요한 책이 있는데, 그것은 **히브리서**이다.

4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것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쁨으로 얻으심이니, 5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6 또 그가 만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이다 말씀하시며 (히브리서 1:4-6)

당시의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더 높은 영적인 존재인가를 따져야했다 (히:4). 아마도 히브리서는 **희년서**나 **에녹서**에 나오는 그 모든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저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의 사람들은 천사들을 매우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천사들보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더 뛰어난 이라고 변증하는 것이었다.

### 왜 제2차 성전시대에는 더 이상 사람으로서의 천사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가?

구약시대에는 천상적인 천사가 있었지만, 그보다 더 일반적인 것은 예언자를 천사(하나님의 메신저)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적어도 두 가지 이유에서 제2차 성전시대에는 더이상 사람으로서의 천사의 이미지가 사라지게 된다.

**첫번째는 예언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언자들의 시대의 종말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르기는 하나, 대체로 받아들여지는 견해는 페르시아 시대이다. 헬레니즘 시대에 많은 문학과 철학자들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마치 헬레니즘적인 문학가나 철학자들과 동급으로 평가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기 위해서 예언자의 시대를 페르시아 시대까지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천상적인 천사는 언제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Omni-presence). 천상의 존재는 세계 어디에나 나타날 수 있고 갈 수 있다. 그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 (예언자) 은 특정지역에만 있을 수 있다. 제2차 성전 시대에는 구약성서처럼 지역적인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세계관을 가지고 온다. 그러므로, 좀더 신비적인 의미를 주기 위해서 천상적인 존재로서의 천사를 선호했을 것이다. 게다가 이들이 천상적인 존재이며, 동시에 영적인 존재일 경우, 세계 어디에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향성은 더욱 강해졌다.

세번째는 천상적인 천사가 더 권위가 있기 때문이다.

부패와 유혹, 이방신앙의 영향을 받은 신앙적인 타락이라는 커다란 주제들은 인간 (예언자) 라는 존재보다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그 자신도 영적인 천상의 존재가 더 권위 있는 대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예언자들은 그 예언에 반대하는 예언자들의 공격을 받아서 당대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영적인 존재의 메시지는 그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기에 듣는 이들이 더 쉽게 그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

##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유대교의 경향성이 있는가?

중세에는 반(反) 천사 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철학자들이었고, 유일신앙이라는 철학적인 사상의 추종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어떠한가? 철학자들은 자신들이 따르는 유일신 신학에 대해서 철저하게 맞도록 그들의 신학을 정립해 나가고 그것에 반대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비판을 가하지만, 시장에서 만나는 일반 사람들은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 만큼 그들의 사상이나 신앙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하거나 읽어 매지는 않다. 그러므로 철학자들은 달리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천사'가 '유일신 신앙'을 훼손한다든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부정한다든지, 창조의 세계에 대해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사변적인 철학자들은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면에 일반 사람들은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다고 보면 된다.